



민간주도와

지금의 우리 경제는 민주화의 길목에서 내외로 계속 되는 도전과 수난을 받고있다. 내적으로는 노사 분규가 바로 그것이며, 외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들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대외 경제압력을 들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단군조선이래 처음으로 국제 무역의 흑자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분수령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아직도 대일 무역에서는 적자를 계속하고 있지만 대미무역에서는 지난해에 70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게 되는 댓가로(?) 지난 7월을 기해 양계산물 등 일부 축산가공품의 수입이 가능하도록 단행된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양계산업 20년사(史)에 커다란 장을 펼치게 된 획기적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물론 그동안 양계산물 수입에 맞선 강구책을 세워야 한다는 많은 제안이 나왔었으나 과연 우리가 외래품과 싸워 이길수 있도록 충분한 경쟁력을 키워 놓았나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지난 70년대 중반 이전에는 국민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우리 양계산업도 자연스런 소비신장의 물결을 타고 순풍에 돛단듯이 항진하였다. 그러나 그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 여파로 양계산업은 견잡을 수 없는 표류를 거듭하게 되었다.

심한 파도를 헤쳐나오자 하는 노력이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몇몇 뜻있는 양계인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우리 모든 양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호응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양계인들의 비협조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나라 축산업을 주도해오다시피한 양계산업이 작금에 들어와서 축우나 양돈산업에 비해 뒤쳐진 산업으로 전락된 원인을 찾기위한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무엇보다도 우리 양계인들의 단합된 힘이 타 축종의 그것에 비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계산물이 타 육류에 비해 저렴하고 고단백 영양



장 경 국
선진축산주식회사
사료사업본부이사

관주도의 제문제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증가추세가 타 품목의 증가율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보다는 우리 양계인들 스스로가 소비자들의 기호성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안일함 때문도 어느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다행히 근래에 들어와서 국민체위 향상과 영양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 경쟁력면에서 유리하다는 장점 때문에 계산물에 대한 가치부여가 변화하고 있음은 우리 양계인 모두가 노력하면 충분히 해낼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커다란 실증이 아니겠는가.

현재 정부의 농축산물 수급 정책 수립에 있어 우리 계산물 수급 정책은 타 축종에 비해 상당히 도외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전부터 계산물 수요·공급 자체가 완전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관계때문에 정부의 관여가 불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 시장규모 자체도 적었을 뿐만아니라 물량공급이 시장수요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호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현재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훨씬 앞지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예전과 같이 시장경제에 맡기는 처사는 우리 양계인들의 생활 대책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본다. 물론 시장에 내어 놓기만 하면 팔린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사육수수를 늘리는데만 정성을 쏟았고 이윤이 팬찮다는 소문에 소자본의 영세 상인들이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시장경쟁을 어지럽히게 된 책임을 정부 무관심의 소산이라고 돌리고 싶지는 않으나 정부가 타 축종의 시장수요에 신경을 쓰는 정도의 반이라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현재와 같은 양계 불황의 장기화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정부가 축우나 양돈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급정책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은 두 단체의 단결력이 우리 양계인들의 힘보다도 훨씬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 자문해보고 싶다. 특히 두 단체는 자신들의 생계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보이면 대

소군사양가 구별없이 모두 모여 단합된 면을 보여주는 데는 정부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최근 모 개별 그룹이 치즈회사를 설립하려다가 낙농사양가 단체의 압력에 못이겨 설립 자체를 무효화 한 것이다. 양돈업계의 결집된 힘으로 수입 육가공제품 판매를 포기토록한 사실들이 좋은 실례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양계인들은 자신들의 삶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것들을 해 놓았는가를 돌아켜보는 것도 우리의 위치를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는다.

작년에 일부 대군 체단계 생산자들이 모여 난가의 안정화와 계란 소비 확산을 위한 계란유통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GP센터를 운영하고자 단체를 형성하는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계육가의 안정과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매년 익순환되고 있는 가격 등락의 어려움을 탈피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회복시키고자 몇몇 축산 재벌회사의 주도로 생산과 유통을 계열화한 통합체계 회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시작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작금에 들어 계속 활기를 띄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많은 양계인들의 호응 속에 출발한 이 사업들이 우리 계산물 유통에 혁신을 가져다 준 공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순수 민간자본으로 시작한 덕분(?)에 최근들어 자금력 부족으로 다소 지지부진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아무리 우리 양계인들이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를 하고 물량을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장기 불황속에서는 비축수매 자금과 저장시설 능력의 부족때문에 민간 자본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아무리 우리 양계인 스스로 무엇을 해보고자 하는 노력만으로는 힘이 부치는 일이 발생한다.

이러한 일을 우리 양계인들이 정부에 요구하여야 할

권리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의 배려를 촉구하는 외중에서 최근 정부는 사료 곡물에 부과하던 관세를 일부 내리기로 결정함으로써 불황을 헤쳐나가고자하는 우리 양축가들의 노력을 십분 이해하여 다소나마 농장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편 것으로 생각되나 실질적인 큰 도움을 주지는 못 할것으로 보여진다. 더군다나 사료원료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옥수수 곡물시세가 오름세에 있어 그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우리의 양계산물이 충분한 대외 경쟁력의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견지하고 있는 사료 곡물 쿼터제와 관세로 말미암아 거의 전량을 배합사료에 의존하여야만 하는 농장에 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담을 사양가에게만 전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사료공장에서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대의 효율을 구하고자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하여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다.

만약 정부가 커다란 결단을 내려 사료곡물 쿼터제와 관세를 철폐한다면 사료공장은 다양한 양질의 원료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선택하여 가축이 최고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어 농장의 생산비를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여 원가를 낮출수 있는 방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양관리의 습득, 자신의 농장에 알맞는 방역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격언도 있듯이 사양가·사료회사·전부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수입개방이 되었다 할지라도 무슨 두려움이 앞을 가릴소나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고 보니 누구의 잘 잘못을 가리고 있지는 않는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양계인 모두는 남의 과오를 헐뜯을 것만이 아니라 용서하고 감싸주는 마음자세를 갖고 그간 일부 양계인들이 협회의 일에 무관심하고 나 혼자만 살려는 사고 방식으로 대다수 양계인 생존에까지 위협을 줄 정도로 계산물 가격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하여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타 축종의 양축가들처럼 우리 모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서 발벗고 동참하여 준다면 기꺼이 받아주고 환영하여야 마땅하리라 여긴다.

우리 앞에 산재하여있는 무수한 난제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의 노력으로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해결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또 해결안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하고자하는 노력이 응집돼 있을때 정부가 지금과 같은 정도의 관심을 결코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만 살 수가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모두 양계협회를 중심으로 똘똘뭉쳐 모든 단체가 부러워하는 그런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자.

‘노력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양계**

닭고기로 다진건강

국민체력 나라튼튼